

연재(3)

미국기행



월 용 택
<대한사료기획부장>

(2) 농업정치의 중심지

아이오아(Iowa)주

3일간의 텍사스(Texas)의 방문일정을 마치고 아이오아(Iowa)주의 수도 데모인(Des Moines)으로 향하여 비행기를 탔다. 미시시피강(Mississippi)줄기를 따라 비행기는 북상하는데 비행기창으로 본 미시시피(Mississippi)강은 때마침 내린 폭우로 인하여 홍수가 나 시뻘건 황토물이 범람하여 강 연안의 기름진 땅이 물에 모두 잠기어 보기에도 안타까웠다. 모든 것이 거대한 미국이라 홍수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다.

파종시기를 놓친 옥수수는 역사상 유래가 드물게 세계의 옥수수 품귀현상 뿐만 아니라 농산

물과동을 초래하게 되었다. 뉴올리언즈(New Orleans)를 떠난지 5시간만에 우리는 목적지인 데모인(Des Moines)의 공항에 도착하였다. 비행기에서 내리니 습진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공항에는 아이오아(Iowa)주 개발위원회 농업담당 부책임자가 나와서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는 마치 10여년전의 미남배우 타이론파워같이 생긴 멋진 중년 신사였다. 호텔에 여장을 풀고 이튿날 주 청사 방문계획부터 이곳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오전 9시에 피셔(Fisher)씨의 안내로 넓고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을 지나니 언덕위에 워싱턴에 있는 국회의사당의 전물과 비슷한 전물이 우뚝 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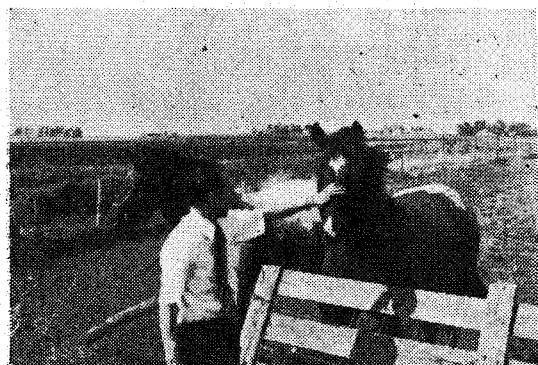
정면(正面)의 동양(Dome)식 지붕은 금빛 찬란하여 다른 주 청사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었다. 마침 주 지사는 부재중이라 만나지 못하고 곧바로 상원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이었으나 상원위원장은 우리를 따뜻이



<옥수수를 약적하여 사료로 급여하고 있다>

● 미국기행 ●

맞이해 주었으며 상원의원들을 전부 소집하여 우리 일행을 한국에서 온 축산시찰인이라고 소개를 하자 약 50명의 상원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치고 우리들의 앞에 까지 와서 일일히 악수를 하며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표하여 주었다. 그 중에서도 6.25때 대구의 왜관 전투에 참전했던 상이용사가 상원의원이 되어 다가와 힘차게 격려를 해준 것은 마치 타향에서 형제를 만난 만큼이나 반갑고 또 그 따뜻한 마음씨는 잊을 수가 없었다.



<기계문명에 의하여 사양화된 횃셔농장의 말(馬) 농장>

아이오아주는 텍사스의 광막하고 억센 땅파는 달리 비옥하고도 토지는 겉붉다 못하여 아주 겹 정색이라고 함이 옳을 것 같았다. 겹은 땅에서 자란 목초는 어찌 그리 푸르고도 아름다운가? 인간이 개발한 삭막했던 텍사스의 풍토와는 달리 아이오아는 하느님이 지상에 배풀 수 있는 온갖 것을 다 갖춘 가장 풍요하고 아름다운 땅이었다. 높고 험준한 산도 없고 그저 가도 가도 평평한 구릉지대의 질푸른 들과 온화한 기후는 우리의 둘째 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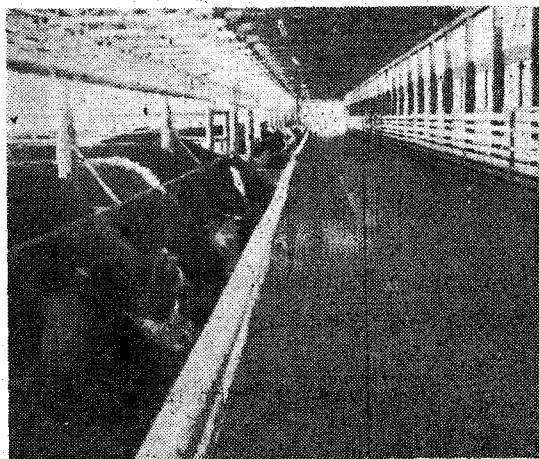
아이오아하면 한국에서 생각할 때에 미국의 50주 중의 하나인 명법한 주로 생각되었으나 막상 아이오아에 와서 보니 세계의 식량을 좌우하는 은근한 미국의 알부자가 많았다. 미국 사회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조용하고도 엄격한 보수적인 느낌이 들었다. 주민의 대부분이 아이랜-

드 이민의 후손들이라 한다.

그들은 아이랜드인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매사에 합리적인 사고와 필요없는 낭비는 하지 않으며 조금도 혀술함이 엿보이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방문하거나 공적으로 방문했거나 그 흔한 커피 한잔 대접하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땅을 사랑하며 겸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옳은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물두하는 성미가 오늘날 미국정치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차부 심이 강한 주민이 되게 한지도 모르겠다.

미국의 정치는 바로 이들 농민들의 지지율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정치가들은 농민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로서 실질적인 세계의 식량공급의 원조(元祖)들과 협상을 하는 셈이다.

미국 농산물 생산자협회 본부가 아이오아주에 있고 우리 축산인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옥수수생산자연합회, 대두(大豆)생산자연합회 등 세계 식량가격을 좌우하는 큰 단체들이 이곳에 집결돼 있으며 이러한 협회들은 자기들의 생산물 가격보호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다. 주정부(洲政府)의회 의원들, 즉 상원 50명 하원 100명들의 구성도 대다수가 이들 농민출신들이다. 우리가 방문한 아이오아주립대학은 역사가 118년이나 되며 세계의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은 크다. “아이오아의 농업을 알지 못하면 농업의 지도자



<소똥을 산화 처리하여 다시 사료로 이용하고 있다.>

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할만큼 이들의 자랑거리로 삼는 상아탑었다.

미국 곡창지대의 심장부인 아이오아주의 농업 현황을 알아보자.

면적 : 35,860,480에이커

경지면적 : 33,869,658에이커

농가호수 : 140,847호

중요생산물	아이오아	미국전체
옥수수	29,464,000두	139,700,000두
연 배	1,251,200두	4,741,910두
대 두	34,816,000두	374,272두
소 백		41,670,000두
육 우	7,256,000두	101,695,000두
돼 지	21,453,000두	98,011,000두
유 우	461,000두	16,221,000두



<아이오의 일반적인 농가 부업으로 하고 있는 비육우 사업장>

아이오아주에서는 이러한 풍부한 곡물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돼지의 생산두수는 전미국의 20%를 생산하고 있었다. 텍사스에서는 육우가 넓은 땅에 넘쳐 흐른다면 이곳에서는 어디를 가나 돼지가 수없이 많아 그야말로 그 냄새가 코에 배어 좋은 음식을 먹을 때도 돼지 냄새가 뭉클뭉클 휘

각을 자극하였다.

이주의 축산의 특징의 하나는 사양두수는 거의다 옥수수 재배농가의 부업으로서 사육되고 있다는 점이다. 돼지는 일관 경영하며 평균 400~600두를 사양하고 있다. 비육우는 텍사스와 같이 대단위 헤드롯트(Feed lot)는 없고 농장당 출하두수는 200두 내외이며 출하두수의 90%가 1,000두 사육이하의 농장에서 생산되고 있었다. 더우기 품종에 대한 농민의 반응은 일부의 종축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잡종을 사육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Feed lot이나 양돈장에서도 가축의 품종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였다

그러나 이들이 무지식(無知識)하거나 무정견(無定見)한 것은 결코 아니고 우리나라나 일본

에서는 품종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여 잡종을 기르는 농장은 이류농장(二流農場)에서나 사육하는 풍조가 강하나, 반드시 유명한 품종이 능력이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고 어디까지나 경제적으로 이윤을 많이 주는 것만이 좋은 품종이라고 거칠없이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도 그릇된 관념에 수정을 가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미국농민들의 증산에 대한 의욕은 비상하게 왕성하며, 토지나 소 어느

것이나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기 때문에 농민이 사육하는 가축은 최대의 산육능력을 갖어야 하며 강전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품종은 순수종이 아니라 교잡종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교잡종 시험은 대학에서 품임없이 연구 발표하며, 농민들은 안심하고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대학

이 지역 사회의 발전과 농민들의 지도자로서 이 바지 하는 힘이 크다. 단순히 잡종이니까 나쁘다 하는 후진적인 지도방식을 지양하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하여야지 하는 인기적인 경영방법을 배제하고 어디까지나 나의 경험과 내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와 노력으로서 좋은 결과를 얻는 길만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되었다. 축산에서는 단시일에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8일간의 이곳에서의 일정을 거의 마치고 나그네는 다시 짐을 꾸려 시카고로 향할 준비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어 지난 7일간의 생활을 되돌아보니 느낀 바가 많았다. 미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흑인의 수가 적었으며, 동양인도 많지 않았다. 경지면적이 적은 대신 고용인을 두지 않고 모든 농사를 가족끼리 해결하는 생활태도는 가장 변화가에서도 환락가를 찾아볼 수 없는 견소한 풍조를 알 수 있었다. 아이오아주의 주화(洲花)가 들장미인데, 들장미의 소박하고 강인한 생명력의 특징은 아이오주의 특징을 가장 잘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들이 얼마나 땅을 사랑하고 아끼며 아이오아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지는 다음 주가(洲歌)를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아이오아 주민들이 말로 흙에 뿌리를 박은 진정한

농민들이라고 생각되었다.

● 내가 가장 사랑하는 땅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그곳은 그곳은 바로 아이오아라고 말하겠습니다.

온 서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

아이오아, 오! 아이오아

저건 너 미씨시피강이 흐르는 곳에서부터 미조리의 물이 번쩍이는 구석까지……

오! 시인들의 꿈속처럼 아름다운 땅

아이오아, 오! 아이오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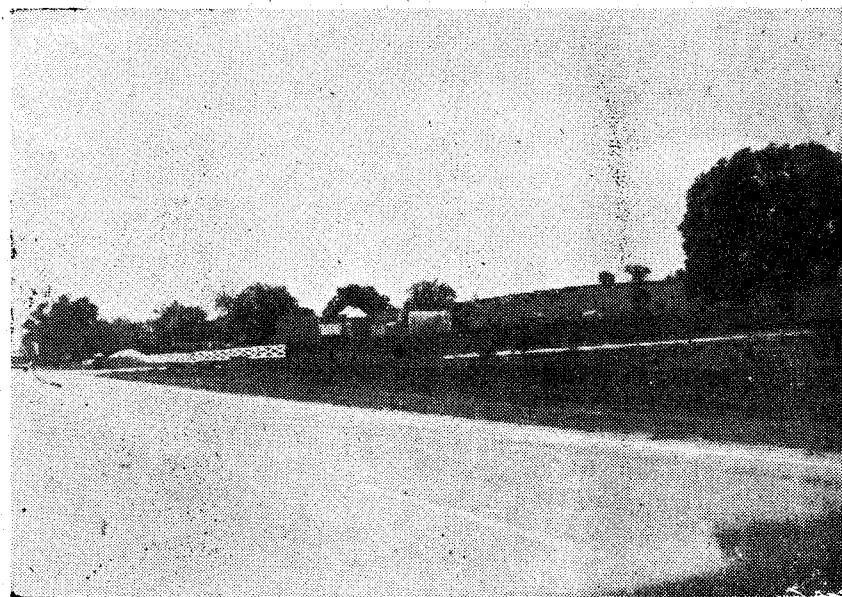
저 넓은 들판에 수염 달린 옥수수들은 황금빛들을 가득채우고

저 멀리 황금빛 석양이 비치는 곳에

아름다운 초원이 빛나는 것을 보시오!

오! 행복한 땅, 오! 내 사랑하는 땅,

아이오아, 오! 아이오아 (계속)



<전형적인 아이오아 목장풍경>